

국제연대 활동가의 정체성과 운동의 재생산: 버마민주화운동의 사례*

손민정**

1. 서론

1) 연구의 목적

1993년 포크(Falk)는 환경과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가 화합하며, 가난, 억압,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세계 시민 사회를 모색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밀레니엄 협약이 전 세계에서 물려온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무산되고, 2000년, 프라하에서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 역시 민중시위대로 인해 무산되었다.¹⁾ 이렇게 초국적 사회운동의 힘이 증명되는 듯하자 국

* 본고는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손민정 2007)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

1) 1999년 12월 3일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장관급 회의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대표자들 사이에서도 농산물 시장, 유전자조작 식품, 노동기준,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자유무역과 연계시키는

경을 넘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국제연대야말로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이라며 중요시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

한국에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세계의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버마(미얀마)³⁾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연대 운동(이하 버마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참여단체의 수도 느리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한국사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버마민주화운동이 1999년 처음 시작됐을 때 참여 단체는 2~3개 단체에 불과했지만, 2006년 12월 11일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불법무기수출 규탄 공동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20개로 증가했고, 활동 약 10년 만인 2008년 8월 8일에 발표된 “버마 8888 전국민주화운동 20주년 공동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3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버마민주화를 위한 국제연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아니라 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독립 단체들에 소속된 한 명 이상의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이들 중에는 한국 단체도 있고 버마 단체도 있다. 즉 버마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서로 다른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 운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 역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버마의 정치적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제연대 운동의 의미를 밝히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버마민주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운동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 때문이었다(Walden Bello, “A Blow-by-Blow Account,” *Business World*, 1999. 12. 6).

- 2) Lipschutz(1996), 부르디외(2004), Rohrschneider(2002)는 국제연대의 형성이야말로 세계시민적(cosmopolitan)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찬양한다.
- 3) 버마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었으나 민주화운동가들은 독재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버마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얀마를 버마로 칭할 것이다.

이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버마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⁴⁾들의 가치와 이념, 연대 조직과 활동가들의 태도 및 행동 양식과, 이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버마민주화운동이 유지되는 이유와, 더 나아가 국제연대 운동이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이유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인류학은 조직적 대항보다는 ‘일상’에 더 큰 흥미를 보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학에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Burdick 1995: 361). 더욱이 참여관찰을 통해 본 운동의 장(場) 내부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민족지 연구들은 대체로 거대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Edelman 2001: 286).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신사회 운동론과 자원동원이론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⁵⁾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운동의 현 실태에 관한 분석이 매우 미미하며, 시민사회가 마치 문명전환적 이상주의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신비화되어 있으며, 서구의 발전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이론이 거의 여과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이태주 2003: 343). 따라서 연구자는 시민·사회운동 이론

-
- 4) 연구자가 조사한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활동가’, ‘운동가’, ‘인권옹호자’,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연구대상자들 중 다수가 선호했던 ‘활동가’로 호칭을 통일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왜 서로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손민정(2007) IV장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 5) 분석의 초점이 구조에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체성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있는 신사회운동론에 대하여는 임희섭(1999), 정수복(1994: 138), 멜루치(Melucci 1996: 67), 클랜더만스와 외게마(Klandermans & Oregema 1987), 피셔(Fisher 1997)의 글에 논의되어 있다. 한편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원인을 사회에 주어지는 조건으로 보고 집단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합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코헨(Cohen 1985)의 연구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연구에 적용시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특수한 한국 사회에서의 운동 양상을 경험적으로 살피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다른 사회운동, 나아가 다른 사회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동원의 전략이나 유형, 규모나 강도 또한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홍일표(2006: 11)의 지적은 운동영역 내 단체들 간의 다양하고 중첩적인 관계망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차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체 운동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관계망 등 운동 현장의 실재적이고 미시적인 관찰을 위해서 인류학의 경험적 조사 방법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활동가와 운동가,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등의 개념상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학과 반대로 인류학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을 규정하지 않고, “자발적 결사체나 제도적인 영역에 한정된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을 비판하고, 시민사회는 경합하는 영역으로서 일련의 협상 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열린 공간, 확장된 개념, 적응적 개념으로 간주”(이태주 2005: 4). 본 연구도 다양한 집단들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하고, 실천하는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집단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복잡한 관계망과 실천적 행위를 운동 현장과 활동가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참여관찰하였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총 17개 시민·사회단체를 관찰하였다.⁶⁾ 일반적으로 버마민주화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일차적으로는 개별 단

6)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본고는 버마인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명을 알파벳으로 처리하였고 활동가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본고에는 원고 분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17개 시민·사회단체 중 일부의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 각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내용은 손민정(2007) II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체 단위로 행동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며, 각 단체들은 규모, 전문 분야, 참여 인원, 참여자의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한 명의 상근활동가로 이루어진 단체에서부터 천여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단체도 있었으며, 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버마민주화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 단체를 대표해서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평 간사에서 단체의 대표까지 다양했으며, 활동가의 연령, 운동 경력 등도 다양했다. 따라서 주요 관찰 단체의 선정은 과거에 발표되었던 버마관련 성명서들을 토대로 어떤 단체가 얼마나 자주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에서 단체의 규모, 성격, 참여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국내의 버마인 운동단체 두 곳 역시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에 관찰 단체들의 설립 시기, 버마운동 참여시기, 주요 활동 분야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표 1> 주요 관찰 단체와 활동 분야

연번	단체명	단체 설립시기	버마민주화운동 참여시기	주요 활동 분야
1	A	2004년	2006년	팔레스타인, 버마, 줌마 국제연대
2	B	2004년	2004년	인권
3	C	2000년	2003년	인권, 기업감시
4	D	1998년	1999년	버마 난민촌 지원, 베트남 국제연대
5	E	2005년	2005년	여성, 아동인권
6	F	2004년	2004년	버마 현지 활동가 지원
7	G	1997년	1997년	버마민주화 지원
8	H	1995년	1999년	이주노동자 지원, 지역운동
9	I	2001년	2006년	인권, 사법권 개혁
10	J	1992년	2004년	이주노동자 인권
11	K	1999년	2006년	인권
12	L	1994년	2003년	시민운동, 권력감시
13	M	1999년	1999년	난민운동, 탈북자, 기독교운동
14	N	1999년	2001년	예산 감시, 좋은 기업 만들기
15	O	1993년	2003년	환경운동
16	NLD 한국지부	1999년	1999년	버마민주화
17	버마행동	2004년	2004년	버마민주화, 이주노동자 문제

연구자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04년부터 버마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연대를 중점 사업으로 해 온 중간 규모의 사회단체인 C단체에 일주일에 2~3회 방문하여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참여관찰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정기적으로 단체를 방문하여 회원 관리 및 회원 모집 일을 도와주었으며,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통·번역 일을 수행했다. 또한 활동가들의 배려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무국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단체 활동가들과 어느 정도 친숙해진 후부터는 업무의 종류나 단체 방문 시간을 연구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주로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친목 도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버마민주화운동에 2006년부터 참여를 시작한 단체이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던 I단체에도 주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버마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타 단체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였으며, 2007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인권활동가 대회에 참석해 분석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연구자는 최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동선을 따라다니기 위해 노력했다. 시위나 기자회견과 같은 연대 운동의 현장은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뒤풀이나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여기활동에도 가능한 빠지지 않고 동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연대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한국 내 버마민주화운동의 역사

한국 거주 버마인들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운동단체인 『NLD 한국지부』(National League of Democracy in Korea)⁷⁾를 만들고 1999년

7) NLD(민족민주동맹)는 아웅산 수지를 당수로 하는 버마 정당 중 하나로 해외 여러 곳(노르웨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등)에 지부가 있다. 버마의 현 정부가 국내의 모든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NLD 당원들은 해외에서 버마의 민

7월 버마대사관 앞 시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⁸⁾

버마민주화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버마인들이 한국에서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내 아시아연대 운동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처음부터 버마인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 운동을 벌였던 것은 아니다. NLD 활동가들이 버마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국 사회단체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단체들도 서서히 버마에 대해 알게 되었고, 1999년 버마인 샤민이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버마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샤민의 추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단체들이 샤민을 포함한 NLD 회원들의 난민 신청을 도와주면서 연대 운동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버마인 정치단체들의 노력과 맞물려, 기존의 이주노동자운동 진영도 서서히 이주자들의 본국 문제까지 눈뜨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운동이 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운동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단지 국내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주노동자들의 본국문제와 난민 문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버마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단체들은 버마인 활동가들이 국내에서 버마문제를 알리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의 연대 운동을 시작한다. 당시에 한국 단체들은 주로 “글 수정해주기, 집회 신고해

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 8) 버마인들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점차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버마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다. 버마에는 크게 7개의 민족이 있으며 각 민족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버마인들 중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로 본국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

주기”와 같은 국내 운동 방식을 알려주는 일이나, 경제적 후원과 같은 지원 차원의 운동을 했다. 그러나 버마인과 연대하는 국내 단체들의 면면과 활동 모습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게 된다. 버마인들이 스스로 집회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운동 전략과 방법을 터득하게 되자 버마운동 초기의 주요 참여 단체들은 2001년 즈음부터 직접적인 참여는 멈추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방식의 운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대신 C단체, I단체 등이 새로이 적극적 참여자가 되었다.

시간이 가면서 버마민주화운동은 버마의 상황을 국내에 알려거나 규탄하는 차원을 넘어 버마 현지 활동가 지원이나, 국경지역 난민촌 지원, 현지 방문과 같은 초국가적인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각 단체별로 집중하는 운동 방식도 다양해졌다.⁹⁾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한국 단체들의 면면이 변화했던 것처럼 버마인 운동진영 내에도 처음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2003년에 버마인 활동가 누윈이 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겠다며 NLD를 탈퇴하고 1인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는 “본국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서도 싸우겠다”라며 또 다른 버마인 정치단체 『버마행동』이 등장하면서 한국 내 버마민주화운동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¹⁰⁾

- 9) 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은 캠페인, 시위, 기자회견, 영상물 상영회, 성명서 연명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 즉 활동 형식을 적절하게 배치, 운용하여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목적을 사회에 전달하는데, 이러한 연대활동 형태의 특징들과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손민정(2007) II장 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단체들마다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운동을 각자 전개하기도 하지만, 연대단체들은 주기적으로 함께하면서 버마의 민주화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활동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여 버마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의 당위를 형성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강화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손민정(2007) II장 3절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 10) 2009년 현재에도 버마민주화운동 연대 조직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새롭게 버마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민단체인 P단체가 버마어린이 교육 지원모임을 시작하였고, 2009년 5월에는 버마에 수감 중인 버마민주화운동가 민꼬나잉이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계기로 버마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정된 기간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의 현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음을

3. 분리와 결합: 장의 원심력

단체들은 같은 연대 운동의 장 안에서 때로는 같이, 때로는 다르게 움직인다. 또 각각의 활동가들은 각 단체의 지향과 목적에 맞추어 버마운동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연구자는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제각각 고유한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연대 운동의 원심력(遠心力)으로 파악하였다.¹¹⁾

1) 운동 이유와 목표

단체들은 각 단체의 배경과 역사에 따라 버마운동에 상이한 이유와 목표를 부여한다. I단체는 과거 버마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주는 일을 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버마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라 했다.

나는 버마가 관심 있는 게 8888 때 죽은 사람들 유골 관련해서예요. 버마 지평을 알아야 하니까 인권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건 8888 진상규명이예요. 사회적 망각을 강화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진실을 안 밝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 진실 앞에서는 뭔가 다르게 나오죠. 행동이 나오고 의식이 바뀌게 된다고. 그런데 그 진실에 대해서 못 밝히게 하는 거죠. ... [중략] ... 과거청산은 그 민족이 스스로 못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죠). (윤창민)

반면 B단체의 천동진은 버마의 소수민족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밝혀둔다.

11) 여기서 원심력이라는 표현은 물리학 용어를 완전히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던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자 하는 성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차용하였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군부도 군부지만 소수민족 문제가 결국에는 핵심이 거든요. 가장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 만약 버마 전체를 놓고 인권의 문제를 하겠다 하면 저는 소수민족 문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제가 가진 전문성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다국적기업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동진)

그런가 하면 난민과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는 H단체는 버마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자 했다.

배움이 부족해서, 무식해서 어떤 사람이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대상이 한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버마사람도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을 올바른 식견으로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그런 게 없겠죠. 이후의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 자기 나라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 배워서 주변국에 평화의 가치 ... 계속 새끼 치듯이 실천할 수 있잖아요? (남윤기)

또한 인지도가 높고 활동 범위도 넓은 대규모 정책 감시단체인 L단체는 새롭고 모험적인 활동을 모색하기보다는 버마의 정세 분석이나 정책 감시 활동 등을 하며 단체의 기존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인 O단체는 “환경과 인권이 뿔레야 뿔 수 없는 사안이 많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큰 환경 피해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살리자가 환경운동의 취지”이기 때문에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J단체는 연대 운동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버마인 단체인 『버마행동』을 지원해주는 지원 단체로 자신들을 규정하면서 버마행동의 의견과 입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외에도 운동 원로로서 국내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적절한 일을 찾다가 버마민주화운동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기독교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M단체도 있었다. 이처럼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 사이에도 구체적인 운동 목표는 일치하지

않았다.

2) 운동 형식과 연대 방식

버마민주화운동에는 하나의 중심적인 단체나 지도자도 없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 역시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벌이는 자유로운 버마민주화운동은 활동가들 사이의 암묵적인 질서와 규칙 안에서 작동했고, 그러한 규칙들은 다시 갈등을 형성하기도 했다.

버마민주화운동의 장 안의 개별 단체들은 제각각 정치적 목적을 효율적이고 최대한으로 얻어내기 위한 운동 전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운동 형식과 전략은 연대 단체들 사이에서 통일되지는 못했다. C단체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A단체의 기존 운동 태도를 비판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알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태도가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B단체는 A단체가 실시한 현지조사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D단체가 주도한 거리 캠페인은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아직 진행 중인 운동이며 선례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단체의 기본적인 성향과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형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연대단체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활동의 방식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 단체인 H단체는 꼭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는 소규모 모임으로서의 활동 형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로 협력해야 하는 연대 운동을 조직할 때에는 연대 운동 방식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있었다. 연대 운동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합의된 운동 방식을 통해 운동 현장에서 결속을 확인하면서 연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운동 방식은 공

개적으로 명시된 규칙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활동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이고, 공공연하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합의되는 행동 규범, 즉 규범적 규칙(Bailey 1969: 5~7)에 의해 조절된다. 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연대 운동 방식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대 운동은 의례성, 주기성, 규칙성을 가져야 한다. 활동 내용은 때에 따라 다르다 해도 절치는 비슷하고 그러한 연대 운동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버마민주화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또한 연대 행사가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기념해야 하거나 기억해야 하는 날, 혹은 운동을 특별하게 조직해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례히 행사가 조직되고 정기화된다. 행사를 조직할 여력이 안 되면 최소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한다.

둘째, 연대단체 간에는 정보가 공유 및 소통되어야 한다. 각종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일이 있으면 항상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연구자는 학계나 노조와 같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버마 관련 행사에 참여할 때 활동가들이 “○○에 연락했어?”, “○○도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서로 신경 써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연대 단체끼리 공유한 정보나 계획은 단체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대행사를 조직한 이후에는 참여한 모든 단체가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각자가 맡은 부문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행사준비, 행사현장 진행, 행사 후 과정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포함하는 연대의 전 과정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일정한 ‘규범적’ 규칙이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져서 연대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때, 즉 “약속한 캠페인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때, 캠페인 등에 많이 참여할 때, 서로가 ‘수고했다’라는 인사를 건넬 때, 그 속에서 인간적 신뢰가 쌓여갈 때” 결속을 느꼈고,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

을 쌓아갔다.

국제연대는 아주 미묘하다. 평화대회나 무슨 이런 큰 대회 외에 주옥 지속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 신뢰가 중요하다. 공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고정민)

그런데 이러한 운동의 지속과 활동가들의 결속을 위한 암묵적인 규범은 다시 갈등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기도 한다.

3) 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국제연대 운동의 어려움

활동가와 단체들은 규범적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서로 소통하고 같이 연대해야 하는 연대 운동 진영의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 기존 연대 단체 활동가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조직되는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모임은 좋다고 보지 않아. 전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잘 안됐어.”

“지들끼리 생겼다 짐 싸서 집에 가는 애들 많아요 ….”

“보통 그런 단체 만들면 활동가들 면면을 대부분 조금씩은 알잖아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건 실체가 없어. 씨클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평가를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버마민주화운동의 장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롭게 버마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에 운동하던 단체들에게 운동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독단적으로 활동하거나, 상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등 규범적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동질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만 따지면 문제가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먼저 한 단체가 있어요. 딱 배치하는 식으로 되거나 이견 아니거든요. 새로 할 수 있죠. 능력 있고, 에너지 있고, 돈도 더 있고 … 그렇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쪽이 허용을 할 때까지 우리가 직접 안 해요. 논의를 하지. … [중략] … 그 주체들이 준비가 안됐는데 우리가 치고 나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크던 작던 질서가 있고, 연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윤창민)

기존에 버마민주화운동을 해 왔던 활동가 윤창민에게 연대운동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단체와 활동가를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단체는 기존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연대단체로 합리화 했다. 이렇게 규범적 규칙은 특정한 활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이거나 특정한 정치적 구조 안에서 특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기도 했다(Bailey 1969: 6~7).

새로운 집단의 갑작스런 등장은 기존 단체들에게 위협과 불안을 안겨준다. 연대 조직의 경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단이 언제든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운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체의 활동가들은 새로운 단체를 견제하게 되고, 규범적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에 민감하며, 새로운 단체의 성격, 목적, 배경 등을 꼼꼼히 따지는 신중하고 동시에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규범적 규칙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들은 기존 연대 운동 진영의 질서를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방어적인 기존 단체들에 대응하여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러 기존 질서를 알아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별히 다르게 하는 활

동이 없어 보이는 신생 참여 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해당 단체가 다른 단체와 다르게 하는 활동이 있냐고 묻자 그는 반색을 하며 “사람이 다르지. 다른 시민단체가 그걸 지원 하나요? 후원 하나요?”라고 되물었다.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버리면 자신의 활동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신생 단체 활동가도 “한국 단체들은 보고서가 잘 안 나와요. ○○에서 이번에 보고서 나왔어요?” 라면서 기존 단체들의 활동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정부가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구자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몰랐다’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못 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보의 소통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자신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 신생 참여단체 활동가는 기존 단체들의 폐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만을 말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자기네끼리만 놀러 그러고 … [중략] … 얼마나 스스로 취약하면 그래요. 방어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단체의 활동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지만, 그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여 타 단체를 헐담할 수도 있었다.

버마민주화운동은 국내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 운동단체들과 국내 단체들 사이의 갈등, 국내 버마인 단체들과 한국인 단체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버마인 활동가들끼리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했다.

국제연대 운동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의 문제를,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운동해야 하는 것에 있다. 버마-태국 국경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을 하는 부찌에게 월 8만 원 씩 경제적 지원을 했던 F단체의 이호열은 잘 모르는 나라의 문제를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고

백하였다.

그들 입장에서 8만 원이 규모가 있는 돈이었죠. … [중략]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blood brothers 수준이라, 결혼도 모든 조직원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는지 사소한 것도 주변에서 다 알아야 하고 …. 테러위협도 있고, 전전공공 살다 보니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노선투쟁을 하면 정말 격렬하게 해요. 내가 갔을 때 (돈 때문에 부씨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반대파들이 자꾸 안티를 거니까) (후원)이름을 바꾸자고. 아니면 다른데다가 돈 내라고, 무슨 학교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후원금이 끊겼다고 …. 그런데 나는 또 물어보겠다고 하고, 그쪽에선 답답해하고 …. 떨어져 있으니 인터넷으로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중간에 와전되는 것도 많았더라고요.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도움 받는 쪽에서도 정보를 계속 주기도 힘들고요. (이호열)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활동가라면 누구나 이렇게 지역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감안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활동가들을 힘들게 했던 연대운동의 두 번째 어려움은 국내에서 같이 연대운동을 하는 버마인 운동단체들과 한국인 단체들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같이 운동을 할 때에는 한국과 버마의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활동가 김진수는 버마인 활동가들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버마인 활동가들이 한국인 활동가가 “그냥 하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뜻을 곡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활동가들의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나 불만에 대해 ‘이해해야만’ 하는 것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대운동에서는 버마와 한국의 서로 다른 운동질서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운동질서는 한국인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버마인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또 한국인과 버마인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했다. 버마인 활동가들과 가깝게 지냈던 김진수는 한국인 단체와 버마인 단체들의 갈등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냥 그런 정치적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식적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버마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다. 운동문화 내의 위계질서가 확실하다. … [중략] … 우리는 NLD의 정통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의 허락이 필요한건 아니다. (그들은) 그래도 정치적 발언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해 못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서운해 한다. (김진수)

본래 국내에서 정치운동을 하는 버마인 단체는 「NLD」 하나만 존재했다. 그리고 2003년 NLD를 탈퇴한 누윈은 단독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 또 다른 버마인 단체인 「버마행동」이 만들어지면서 버마인들 간의 갈등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버마인 활동가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국 단체 활동가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낯설어 했다. 그러나 버마인 활동가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버마인 활동가들 역시 자신들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에 대해 그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운동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을 “control 하려고 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버마인 활동가 누윈은 버마인 활동가들이 “한국 사람 만나서 더” 행동이 극단적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인 활동가들과 버마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운동 질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초국가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갈등이 발생했다. 버마민주화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같은 ‘가치’의 공유는 수평적이고 열린 관계를 수월하게 구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가치’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았다.

4. 운동의 일상화와 연대의 능동성: 장의 구심력

여러 갈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버마민주화운동이 유지되고 지속되

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라는 정체성의 상위, 혹은 심층의 차원에서 ‘활동가’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단체 단위로 맺고 있는 연대의 망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대진영이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활동가의 ‘운동성’과 둘째, 단체들의 중층적인 관계망 때문이다.

1) ‘운동성’의 가치

활동가들은 활동가다운 태도와 성향, 즉 ‘운동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성이 없는 단체라는 평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운동성의 유지는 중요했다. 그러나 운동성에 대한 기준은 근본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되기도 했고, 활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운동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운동성은 지속적인 운동 과정을 통해 체화되었고, 끊임없는 자체비판과 대안모색의 장을 통해서 더욱 고취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활동가가 운동에 믿음, 책임감, 자부심,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① 활동가의 정체성

‘운동성’은 ‘활동가다움’이며,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활동가로서의 생각, 태도와 행동’이다. 즉 운동의 규범적 규칙을 인식하고, 이행하며, 운동 자체에 믿음과 의지를 가지는 활동가들의 성향을 말한다. ‘운동성’이란 운동을 하도록 하는 동력이며, 신념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자의 성향이다. 활동가에게 있어서 이 ‘운동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운동가답지 않다” 혹은 “운동성이 없다”라는 평은 운동 영역에서는 치명적이다. 유현민은 운동성이 없다는 표현은 운동진영에서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정 활동가의 행동에 불만이 있더라도 함부로 쉽게 그러한 표현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활동가들이 규범적 질서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그러한 질서가 갈등을 야기하고, 다시 갈등을 조율하는데에 쓰일 수 있었던 것도 운동성의 보호 혹은 방어와 관련이 있다.

‘운동성’은 활동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단체가 정부에 협력했다 하면, 그 단체는 운동성을 상실했다 ... 이렇게 표현하죠. 운동성은 ... 운동의 원칙? ...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운동의 법칙처럼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운동성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 어떤 운동이 방향을 잃는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처럼 잘못된 거죠. (유현민)

활동가와 단체는 운동의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고 운동진영 내에서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는 활동가와 단체의 성질, 즉 운동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김진수는 단순히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의 수준을 넘어서 “진보적 성향이 있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단체를 “운동성이 강한 단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런데 활동가다움의 기준, 진보의 기준, 활동가들의 태도에 대한 기준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이렇게 운동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운동이 정체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 받으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활동가들 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자신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즉 반드시 단체에서 상근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활동가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일에 대한 신념과 가치부여에 따라서 각자가 자신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단체에 따라서 “자원 활동가”도 활동가의 하나로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주기도 했고, 회의는 상근 활동가들과만 진행

하는 단체도 있는 등 활동가의 위치와 의미는 다양했다. 이렇게 활동가를 구분 짓는 데에 있어서의 모호한 기준은 활동가 정체성의 자유로움과 운동의 열린 경계를 말해준다.

② 체화된 운동성

‘운동성’에는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모호하지만 정형화하여 의식적으로 지켜가려는 운동성도 존재했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된 운동성 또한 존재했다. 지속적인 운동 경험을 통해 활동가들은 활동가로서의 행동 양식과 취향을 습득하고 그들만의 상징적 코드를 만들어나가게 되었다.

활동가 집단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언어사용의 양상이다. 활동가들끼리만 사용하는 은어는 운동 영역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가 아니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선도투쟁, 사전집회, 타격투쟁, 저지투쟁¹²⁾ 등 주로 실질적 운동 현상과 관련된 단어들이나, 선도투(선도투쟁), 연명(연대성명) 등 약어의 사용은 외부인에게까지 단어의 뜻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사람을 호칭할 때 “동지라고 부르다거나”, “원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자주 쓰이지 않고 운동 영역에서만 쓰이는 공용 언어(shared language)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서로 같은 것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Taylor 1985: 273).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차림새 또한 운동 영역과 일반 영역이 구별된

12) 선도투쟁은 소수의 결의된 이들이 대중투쟁을 벌이기 전에 벌이는 투쟁으로 사안에 대한 대중과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시한다. 사전집회란 대규모 집회를 하기 전에 작은 단위로 하는 집회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민중대회 전에 노동자 결의대회, 농민 결의대회, 학생 결의대회 등 각 부문별로 개별집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타격투쟁이란 과거에(1990년대 중반까지) 주로 행해진 투쟁 형태로 대사관에 접근해 화염병을 던지고 오는 등의 공격적인 투쟁을 말한다. 저지투쟁이란 무언가를 막고 저지하는 투쟁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앞 단식 천막농성이 이에 속한다.

다. 운동권의 옷차림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운동권 내부에서 만 들어지고 강화된다. 연구자가 한 집담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활동가에게 커리어우먼 같은 바지정장 차림의 처음 보는 활동가에 대해서 묻자 그는 “저분은 우리랑 좀 달라 보이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취향의 차이는 “행위자들에 의해 감지된다”(부르디외 2005: 312). 그리고 활동가들은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고 포함과 배제의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집단에서 인정되는 행동과 취향을 습득해가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옷입기에 대한 평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옷입기’를 하게 되고, 공통의 취향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언어와 옷차림은 활동가와 비(非)활동가 간의 차이를 만들기도 했지만, 활동가들 내부를 구별짓게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은 옷차림에서 다름이 느껴진다. 활동가 유현민은 인권운동 단체에 속해 있었지만, 노동운동 쪽의 사람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이 두 집단 사람들의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있었다.

정장을 입지는 않는 편이지만, 노동운동 쪽은 주로 등산복차림 ... 투쟁하기 좋죠. 가볍고 따뜻하고, 활동성 뛰어나고 ...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은 캐주얼? 편한 복장이 주로 많죠. 등산복 입을 정도로 투쟁할 일이 평소에 없고, 아무래도 좀 자유스러운 걸 즐기니까 그렇죠. 노동 쪽도 다 등산복 차림은 아니에요. 집회 때나 그리 입는 건데 워낙 집회가 자주 있다 보니 그런 거죠. (유현민)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은 같은 운동 영역 내에 있지만, 활동의 내용이 나 방식이 달랐고, 이에 따라 활동가들의 옷차림 역시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즉 운동 집단 사이에서도 상이한 경험은 상이한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행동 자세 혹은 행동 양식을 체화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신념도 체화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운동의 정체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운동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각자의 운동영역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나뿐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남윤기)

실제로 이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어요. (정현석)

운동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 활동가로서의 자부심, 사명감, 즐거움 등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체화되고 내면화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동을 며칠간 쉬었던 한 활동가는 “운동 안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일주일도 이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져 국제연대 운동은 그동안의 운동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개척해야 할 것도 많아” 새로운 운동을 한다는 자부심과 도전정신을 갖게 했다. 버마민주화운동에는 다양한 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로서의 특정한 옷 입기나 취향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국제연대운동과 버마민주화운동을 하는 활동가라는 자부심이 공통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이다.

운동성은 끊임없는 자체비판과 대안모색의 장을 통해서 더욱 고취된다. 활동가들은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집담회, 토론회, 좌담회, 체육대회, 송년회 등의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운동 영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 각 단체의 정기적인 내부회의도 역시 운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틀로써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대회, 사회운동포럼, 평화포럼 등과 같은 연합대회는 전체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각 단체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조정하는 장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

과정을 통해 강화되고 내면화된 운동성은 활동가들을 갈등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남게 하는 요소가 된다.

2) 연대의 정치

활동가들이 운동 과정을 통해 운동성을 체화하게 된다 해도 운동은 개인이나 개별적인 단체에 의해 단독적으로 일어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성만으로 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구심점이 없는 연대조직 방식으로도 버마민주화운동이 계속 집단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단체들의 다양한 연대가 만들어내는 자율적인 힘 때문이다.

① ‘가족적’ 관계망

단체들 중에는 각자의 지향을 떠나, 단순한 친분관계의 수준을 넘어서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망으로 엮여 있는 단체들도 있다. ‘심정적’으로 가까운 단체들의 ‘가족적’ 관계망은 활동가들을 운동 진영 내에 머물게 하는 1차적 규정력을 가진다.

가족적 관계망 속의 활동가들은 한 해의 마지막에 연대 단체들의 송년회에 참석하고, 사무실 이전식에 필요한 물품이나 금일봉을 가지고 가주거나, 연대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각 단체들은 모든 단체의 행사를 “챙겨주지”는 않았지만 친한 단체끼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임을 만들어갔다.

C단체와 L단체는 서로를 “자매단체”로 규정했다. C단체는 L단체에서 독립한 단체였는데 완전히 독립한 현재에도 L단체와 같이 하는 행사가 많았고, 공적, 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함께했다. C단체 독립 초창기에는 L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도 했다 한다. 그런데 이때 L단체는 ‘동생’이 아니라 ‘언니’와 같아서 계속해서 운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주고, 서로를 챙겨주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더 신임하기도 했다. 만약 두 단체가 자매단체로 엮여 있지 않았다면 갈등의 소지는 있었다. L단체는 다른 단체의 고유 영역을 굳이 침범하지 않는 운동 영역 내의 질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C단체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고, 두 단체는 모두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었다. 자매단체로서의 친밀함은 입장의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을 사전에 상쇄했다.

한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관계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게 용납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은 일단 하나의 가족적 관계망에서 벗어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꺼렸다. 이렇게 보수적이지만 친밀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쉽게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운동 사회는 매우 좁기” 때문이다.

② 중층적 관계망

단체들 간에는 앞서 서술한 1차적인 ‘가족적’ 관계망과 대조적으로, 시안과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지역적인 2차적 관계망도 존재한다.

버마민주화운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연대진영이 구성된다. 첫째, 연대 단체들은 일차적으로 인권운동, 종교운동, 환경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노동운동 등 확연히 구별되는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한다. 둘째, 단체들은 다른 운동 영역과 연대한다. 예를 들어 버마 국경지대의 난민 문제와 관련된 운동은 인권, 환경, 평화, 이주노동자문제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권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단체들과 같이 연대하기도 한다. 셋째, 활동가들은 버마운동을 하지만 다른 ‘국제’이슈를 가지고도 운동하고, ‘국내’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버마운동 단체가 여러 다양한 단체들과 손을 잡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지구촌 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는 ODA나 권력 감시 관련 단체 등과 연대한다.

서로 다른 관심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운동하고 부분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서로가 필요할 때 정보를 공유해줄 수 있고, 관련 지식을 전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버마민주화운동 영역이 거미줄처럼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확대된 관계망을 이용해 자기 단체의 활동이 지지받을 수도 있고, 다른 단체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버마민주화 문제만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단체가 이주노동자 문제로 연대 투쟁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운동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인맥이 현재적이고 동시에 잠재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다.

또한 비록 운동단체들이 때에 따라 관계망을 재구성하거나, 확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운동’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구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즉 운동 단체들 사이의 관계망은 ‘운동 영역 안에서’ ‘중층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어느 한 단체가 권력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특별히 커지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만약 활동가들의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원초적(primordial)인 정체성이라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집단적 정체성은 후퇴하고 통제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버마민주화운동이 유지 및 지속된다는 것은 활동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언제든지 재구성되고 재편성되는 관계망을 자유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단체들이 연대 성명 요청이나 행사 참여 요청을 위해 보내는 메일링 리스트가 끊임없이 재조정되고 재구성되는 것은 연대 운동이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단체들은 “매번 똑같은 곳에 메일링

리스트를 해놓고 보내지는 않고”, 그때그때 활동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의 단체나 개인에게 메일을 보낸다.

또 단체들은 필요에 따라 경계를 풀고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연합하기도 한다.

다 뭔가 지향하는 거는 같잖아요? 큰 틀에서는? … [중략] …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다른 거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고, 대통령 탄핵 때라던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모두 모였잖아. 잘못된 거를 한다면 환경은 살 수 있겠어요? 큰 틀에서 환경 문제일 수 있거든. 그리고 자기의 고유 영역, 정체성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 (남윤기)

이렇게 평소에는 개별 단체 단위로 운동을 하다가 필요할 때에 전략적으로 소규모 단체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전체 운동 진영이 모두 같이 연합하기도 하는, 그리고 1차적 동맹 관계를 넘어 2차, 3차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는 양상은 바스가 관찰한 파키스탄의 스왓 파탄족 (Swat Pathan) 사회와도 유사하다(Barth 1959). 바스는 개인들이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계약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략적으로 연합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여 정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스왓 파탄족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친족집단과 연합을 유지하면서 가까운 집단을 견제했고, 소작인들은 여러 토지 소유주들과 연대를 맺으면서 소작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한 명의 소유주의 힘이 단독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스왓 파탄족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선택적으로 연대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연합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운동 집단들 역시 집단들을 통합하는 지도자가 없이 각 단체 단위로 독립적 활동을 하면서, 가족적 단위뿐만 아니라 중층적 단위로도 연대하여 운동 영역의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었다. 운동 집단의 연대가 단순히 주어진 구조

에 따른 연대가 아니라, ‘가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바스의 주장은 적절히 부합한다. 더구나 운동 집단들은 여전히 비슷하고 가까운 집단과의 관계망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략적 연합 외에도 도덕적 연합 역시 여전히 공존하였기 때문에 연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운동 집단이 가진 자원의 양(재정상황, 사회적 위치, 회원 구성 등)과 단체 내의 운영방식은 제각각 다르다. 그리고 단체들은 서로 다른 운동 영역에 속해 있으며,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 활동가들은 그러나 단순히 상이한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뛰어 넘어 활동한다. 활동가들이 계속 버마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운동 영역이 뚜렷한 지도자나 체제 없이도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목표에 맞게 운동하려는 힘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변화하려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여러 개의 맥락에 속해 그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행간 사이에 겹겹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지속된다. 즉 운동이 전체 운동의 큰 틀 안에 있고, 그 아래에 여러 단계의 하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여러 운동 분야들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버마민주화운동이라는 국제연대 운동의 장에서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연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버마민주화운동은 항상 동일한 시간적, 공간적, 인적(人的)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민족 간 경계를 넘어 한국인과 버마인이 연대하기도 했고, 운동 영역의 경계를 넘어 환경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운동 영역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버마민주화운동의 연망은 중층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각 연대단체들은 규모, 신념, 전체 운동진영 내 위치, 버마운동의 세부 목표 등이 상이했기 때문에 구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았고, 중심적인 단체나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연대진영 내부에서는 복잡한 갈등양상이 관찰되었다. 활동가들은 각 단체가 가진 활동 전략과, 연대단체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구축된 규범적 규칙을 지키며 연대 운동을 지속했으나 규범적 규칙은 다시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마운동의 장에 계속 남는 일차적 이유는 ‘운동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운동질서를 지키지 않아 운동의 방향성을 상실한 단체로 간주되고, 운동성이 없는 활동가 집단으로 간주되면 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활동가와 단체들은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운동성에 대한 기준은 근본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운동에는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활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운동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운동성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되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운동 과정을 통해 그들만의 취향과 신념을 형성했고, 운동가로서의 태도를 습득했으며, 끊임없는 자체비판과 대안모색의 장을 통해서 운동성은 더욱 고취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활동가가 운동에 믿음, 책임감, 자부심,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활동가들이 운동 과정을 통해 운동성을 체화하게 되었다 해도 연대운동은 활동가 개인이나 개별적인 단체에 의해 단독적으로 일어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계속 버마운동에 참여하고 버마운동이 유지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단체들의 다양한 연합의 자율적인 힘 때문이었다. 버마운동을 하는 단체들 사이에는 친밀한 단체와의 가족적이지만 폐쇄적인 관계망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관계망도 있었다. 단체들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활동가들 역시 정체성을 이동하지는 않지만 수직적, 수평적, 중층적으로 연대했다.

이렇게 버마민주화를 위한 국제연대 운동의 태생적 ‘자율성’과 ‘복잡성’이 가져오는 갈등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체화된 활동가의 운동성과, 단체들의 중층적인 관계망을 통해 관리되고, 연대는 유지된다. 전략적인 행위와 주관적인 행위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행위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단계에 이르며 객관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화된 구조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실천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유동적이게 된다.

요약하자면 버마민주화운동은 상이한 운동의 이유와 목표를 가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 문화, 언어적으로도 다양한 집단이 같이 연대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경합하고 갈등이 생성되기도 했지만, 운동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운동이 일상화된 각각의 활동가들과 운동집단들은 다양한 관계망들을 새롭게 구성해가면서 버마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었다. 동일한 운동의 장 안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반된 힘들이 동시에 작용함으로 인해 차이는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동은 와해되지 않았다.

버마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도, 이주노동자운동도, 환경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운동이 되느냐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이 가진 자율적인 힘은 국제연대 운동을 유지시킨다. 피셔(Fisher 1997: 459)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 자체가 사회운동의 한 형태라고 했다. 연대진영의 어떤 단체는 관례화되고, 제도화되어 있고, 어떤 단체는 불안정한 체계로 끝없이 체제에 대항한다. 또 어떤 단체는 고정된 위치와 영역에서 활동하고, 어떤 단체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창의적이다. 어떠한 형태의 단체가 더 옳고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면서 전체를 구성한다. 어떤 단체는 운동 과정 중에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유지될 것이다. 새로운 단체가 등장할 것이고, 기존 단체는 변화할 수도 있고 고정된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운동영역의 모든 구성과 과정 그 자체가 운동의 영속성이고 내구성이다.

논문접수일(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27일)

참고문헌

부르디외, 삐에르

2004 『맞불』, 현택수 역, 서울: 동문선. (Pierre Bourdieu 1998 *Contre-Feux*, Paris: Éditions Reisons d'Agir.)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Pierre Bourdieu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Éditions de Minuit.)

이태주

2003 “초국가 시대의 시민사회와 INGO”,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시민사회 논쟁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인류학의 가능성”, 『제37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홍일표

- 2006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와 동학, 1988~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Bailey, Frederick George

- 1969 *Stratagem and Spoils: A Social Anthropology of Polit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Barth, Fredrik

- 1959 *Political Leadership among the Swat Pathans*, London:
Athlone Press.

Bourdieu, Pierre

-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7 “Lecture, lecteurs, lettres, littérature,” in *Choses dites* (Paris,
Editions Minut). pp. 132-143.

Burdick, John

- 1995 “Uniting Theory and Practice in the Ethnography of Social
Movements: Notes Toward a Hopeful Realism,” *Dialect
Anthropol* 20: 361-85.

Cohen, Jean

- 1985 “Strategy or Identity: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
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 663-716.

Edelman, Marc

- 2001 “Social Movements: Changing Paradigms and Forms of
Politic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85-317.

Falk, Richard

- 1993 “The Making of Global Citizenship,” in John Brown Childs,
Jeremy Brecher, and Jill Cutler (eds.), *Global Visions: Beyond
the New World Order*, Boston: South End.

Fisher, William

- 1997 “Doing Good? The Politics and Antipolitics of NGO

Practic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 439-64.

Klandermans, Bert and Dirk Oregema

1987 “Potentials, Networks, Motivations, and Barriers: Steps Towards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4): 519-531.

Lipschutz, Ronnie

1996 *Global Civil Society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lbany: SUNY Press.

Melucci, Alberto

1996 *Challenging Codes - Collective Action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hrschneider, Robert and Russell Dalton

2002 “A Global Network? Transnational Cooperation Among Environmental Groups,” *The Journal of Politics* 64(2): 510-533.

Taylor, Charles

1985 “The Person,” in Michael Carrithers, Steven Collins, and Steven Lukes (eds.), *The Category of the Person: Anthropology, Philosophy,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Business World. “A Blow-by-Blow Account,” 1999. 12. 6일자.

〈Key concepts〉: International Solidarity Network, Burma Pro-Democracy Movement, Activist Identity, Activist Inclina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nd Activist Identity:

The Case of Burma Pro-Democracy Movement

Son, Minjung*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practice and reproduc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through a case study of ‘Burma Pro-Democracy Movement.’ Its purpose is to examine maintaining and reproducing mechanisms of solidarity actions for a foreign country that deems to have no direct relevancy with Korean society. Both Korean and Burmese activists in Korea in seventeen related NGOs of various sizes and systems are observed, focusing on their beliefs, networks and organizations, and life patterns and behaviors.

Different NGOs have different characters, and the movement has neither central ruling bodies nor forced rules that would lead to complicated conflicts. Nevertheless, solidarity networks sustain. Hence, this study reveals the nature and potential of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based on the following: 1. activists’ inclination, 2. rich and multi-layered relationships among activist groups.

Activists had their own standards for so called ‘activist

* M.A.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lination,' i.e. activist-like characters and behaviors. Keeping the activist inclin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field of the solidarity movement. If anyone is criticized for having no inclination, he/she could hardly continue working in the field. Still, the standard for activist inclination is basically ambiguous. Therefore, some level of autonomy is guaranteed, and each activist endeavors to keep his/her own standards. Moreover, activist inclination is embodi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movement. This ultimately brings activists confidence, sense of responsibility, pride, and joy in the everyday field of the movement.

However, one can not explain the movement with activist inclination alone since solidarity movement does not occur independently. It is the self-regulating strength of various kinds of networking that maintains Burma Pro-Democracy Movement. Kinship-like relationships or strategic relationships all exist in the same field. In spite of continuous competitions, such various, multi-layered relationships prevent unequal allocation of power as checks and balances operate. Independent activists' identities with horizontal, vertical, and layered solidarity constitute collective actions.